

‘대한직업환경의학회’로 학회 명칭 변경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 / 이 세 훈

대한산업의학회(구)에서는 그동안 학회 활동 영역이 직업의학과 환경의학을 아우르는 연구와 임상영역을 다루고 있었음에도 2차 산업에 한정되는 듯한 명칭으로 인해 학회 회원들의 임상진료 활동과 연구에 위축이 있음을 의식하였다.

이에 명칭 변경을 위한 2년여의 실무 논의를 거친 후 학회 명칭을 ‘대한직업환경의학회’로 변경할 것을 대한의학회에 신청한 것(2011년 1월 10일)이 변경 원안대로 결정(2011년 3월 8일)되어 1단계가 해결되었다.

아직도 보건복지부 관련 의료법 개정 등, 거쳐야 할 단계들이 남아있지만 의학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새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학술지의 명칭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로 바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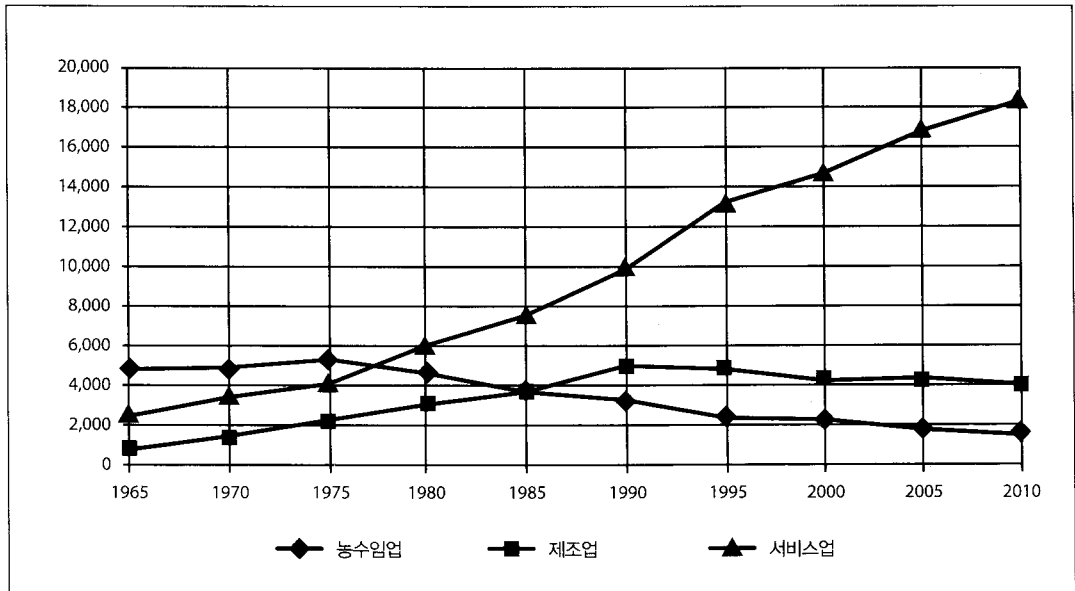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최근 30년 동안 급격하게 변화해 왔다. 즉, 우리나라는 전통

적으로 농업국가이었지만 산림·어업 종사자 수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제조업분야도 1990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에 서비스업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근로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종도 점점 다양해져 가고 있다(그림 1).

또한 직업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은 계속 감소하는 대신에 새로운 업무관련성 질환과 중독성 질환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즉,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 및 악성중피종을 포함한 직업성 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유기주석, 2,5-hexandione, 커팅오일로 인한 과민성 폐장염, 시멘트 화상,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합성수지로 인한 RADS, 아신중독, 에피클로르하이드린 혹은 에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중독, 햄머 작업자의 관절염 및 공



〈그림 1〉 연도별 우리나라 산업별 종사 인구

중목욕탕에서 hot tub lung 및 한약재에 의한 납중독 등이 보고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태안 유류누출사건을 비롯하여, 폐광지역의 주민 건강, 충남 보령지역을 비롯하여 지하철, 오래된 건물의 석면오염문제 등 새로운 환경적인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많은 현안에 대해 우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발간하는 산업보건지에 기고된 제언을 필자

가 2008년까지 집계한 적이 있다.

당시에 제언을 투고한 분들은 산업보건계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행정가(10명), 교수(49명) 및 연구원(4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언된 내용들이 향후 산업보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당히 제시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가장 많이 투고된 내용은 건강증진으로 지금도 업무관련성 보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심혈관계 질환과 비만, 고혈압, 간장질환 등의 예방과 또한 급격히 증가일로에 있는 고령층을 고려하여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근로자 건강진단의 질적 향상이었다. 세번째로 많았던 제언으로는 향후에 직면하게 될 산업보건의 사안들에 대처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에너지원의 변화, 산업구조와 직종의 변화, 직업병의 변화 등이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대한직업환경의

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시기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학회 명칭만의 변화가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바뀌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행히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수련의 교육에 이미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반영되었다는 점은 미래지향적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꼭 바람직하게 발전되어 나아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